



업이 이윤 추구를 등한시하고 사회적 공헌 활동에 투자를 집중한다면 이는 주주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기에 기업이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주주들의 이익에 공헌하도록 하는 기업가는 훌륭한 기업가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어떤 기업가들이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경쟁업체에 비해 더 낮은 가격에 더 훌륭한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일반 소비자들은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고자 경쟁업체와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기업가를 단지 이윤 추구에 매몰되었다고 하여 잘못된 기업가라고 매도할 수 있을까?

더하여 어떠한 기업이 최대 이윤 추구를 위해 특정 지역에 공장을 짓거나 사업체를 설립한다면, 해당 지역에 대한 고용 창출 효과와 소비 진작 효과를 일으키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기업가의 1차 목표는 최소한 사업을 운영하고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업의 수익성을 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물어보아야 한다. 기업이 이윤 추구가 아닌 비시장적 목표나 동기들에 대해 집중하도록 하는 기업가들이 향후 성공하고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가능성이 있을까? 단순히 이윤 추구보다 비시장적 목표들에 집중하는 이상향적 기업가가 과연 훌륭한 기업가라고 할 수 있는가?

훌륭한 기업인이든 잘못된 기업인이든 그들이 원한다면 이윤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 집중할 자유는 존재한다.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한 개인으로서, 기업가들은 무엇이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지 결정할 수 있고,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기업 운영에 있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많은 긍정적 결과들을 만들어낸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wire/what-good-entrepreneur-do>